

취업 성공 스토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범석 / 임산공학과

합격기업 산림청/임업서기보

기본스펙 학점 : 2.73 / 토익 : 없음

대학생활

인턴 없음

현장실습 없음

공모전 없음

봉사활동 헌혈 외 없음

아르바이트 없음

기타 없음

자격증

전공 산림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일반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대학생활 스토리

나는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구상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한 대상에는 종이접기, 프라모델, 가족공예 등 수많은 종류의 공예들이 있었고. 군 전역 후 전공과목인 목가구 디자인*제조 실습을 수강하게 되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수강기간 동안 목공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고 관련 과목 교수님도 작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습이 끝난 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과 목공예에 대한 관심은 내가 목재 음향 진동실험실에 실험실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험실에서 목공 장비들을 통해 간단한 소품들을 만드는 실습을 하였고, 일 년에 두 번 정도 초등학생, 대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실원들이 직접 생각한 도면으로 도마 및 휴지걸이, 책꽂이를 제작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하는 보람과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는 목공을 더욱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같으면 매우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목가구 공방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목가구를 더 배우기 위해서 휴학을 하였고, 아침에는 시내에 있는 학원에 가서 간단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오후에는 마북동에 있는 목공방에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휴학 기간 동안 목공방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목공방을 방문해봤다. 잘 되는 가게도 있었지만 오픈하고 반년도 안되어 망하는 가게가 반 이상이었고, 이에 나는 내가 목공방을 차려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이르다였다.

성공적인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먼저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과 목공기술을 연마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안정성과 꾸준히 노력할 시간을 얻기 위해 녹지직 공무원을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공무원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공부를 몇 년간 하지 않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꾸준히 준비해야하기에 아침 7시에 무조건 기상하고 9시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날 공부 양을 정해 놓고 그 양을 마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보냈다. 공부 시간은 거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까지였다. 공부시간이 6개월로 되게 짧았지만 6개월간 충실하게 공부하여 필기를 붙게 되었다. 공무원 면접 때 대학교 시절 했던 목재산업 활성화 사업과 국산재 활용 사업을 했던 경험은 '친환경사업으로서의 목재산업 활성화'라는 세계의 목재산업 방향과 산림청의 최근 트렌드가 일치해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산림청의 대다수가 임학과 출신이었지만 나의 사업 경험과 전공(임산공학과) 덕분에 남들과 다른 특이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취업 후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목공 유튜브 시청 및 공방에 다니고 있다.